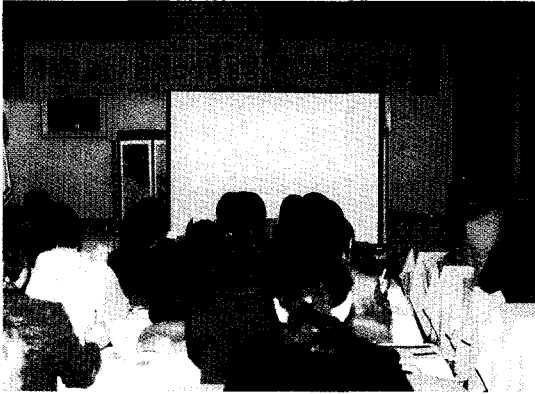


세계의 당뇨병 소식



충주 지역 40대 이상, 12.6%가 당뇨병

충북 충주 지역 읍·면에 살고 있는 4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12.6%가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본 협회가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제 4차 보건기관 당뇨병사업 담당자 당뇨 전문교육에서는 보건기관의 당뇨병사업 사례발표가 진행 되었다. 이 중 충주시 보건소 당뇨병사업 담당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읍·면당 2~5개 마을을 무작위로 선정, 40세 이상의 남녀 3,080명을 대상으로 당뇨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12.6%인 389명이 당뇨병 환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 가운데 123명은 자신이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나머지 266명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어, 농촌 주민들의 질병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충주시 보건소는 이들 당뇨병 보유자와 합병증이 의심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병·의원에서 치료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당뇨인식표를 전달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주시

보건소 당뇨병사업 담당자는 “농촌 주민들이 고된 농업에 종사하면서 당뇨병 증세가 있는데도 대부분이 병·의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요령을 교육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차원에서 당뇨병 확산 제동 걸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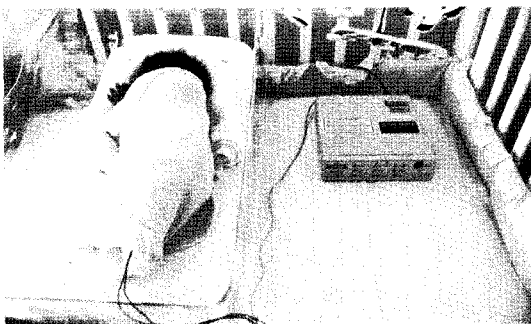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열린 당뇨병 박람회장을 방문한 프랑스 보건장관 베르나르 쿠슈너는 프랑스에서 만연되고 있는 당뇨병을 저지할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총 4억 프랑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장관은 ‘지방성’ 당뇨라고 불리는 가장 흔한 당뇨병인 제 2형을 우선 퇴치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뇨병 퇴치계획의 목적은 균형있는 음식물 섭취를 권장하고 병의 조기진단을 강화하며 당뇨병 치료시스템과 질을 개선하고 환자들 스스로의 치료교육을 개발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책을 위해서 2002년 예산에



1800만 유로가 새로 책정되었다. 이는 당뇨병 치료센터의 전국망을 개발하는 국립보건감시연구소 내에 당뇨병 감시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당뇨병의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감시체계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마련에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의 집에 간호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인슐린을 주사하는 비용을 인상해 주는 등에 재정지원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당뇨병 퇴치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현재 일부는 이미, 병원 내 식사요법 및 영양섭취 진료를 창설하거나 강화시키고, 휴대용 인슐린 주사기 비용을 환불해 주며, 성인비만을 20% 낮추고 아동비만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양섭취와 건강프로그램'을 당뇨병에 이미 걸린 사람들에게 제한시키지 않고, 확산시키는 활동에 이미 투입되고 있다.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아이는 나중에 인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아이는 나중에 인

슐린 내성으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고란 박사는 의학전문지 '당뇨병 치료'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출생 시 체중이 2.5kg이 안 되는 아이는 8~14세가 되었을 때, 혈 중 인슐린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인슐린 내성, 고지혈증, 비만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고란 박사는 13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혈당, 혈중 인슐린, 혈중 지방을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흑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태아때의 영양결핍이 체장의 인슐린 생산세포인 베타세포에 변화를 일으키며 따라서 출생시 체중도 당뇨병의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란 박사는 말했다.

고란 박사는 출생시 체중과 인슐린 내성간의 연관관계가 유독 흑인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고란 박사는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백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량이 많으며, 앞서 발표된 연구보고서들은 인슐린 내성이 나타나면 인슐린 분비량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베타세포가 빨리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